



국어문화운동본부, 한글 보급 공로자로서의 신미대사 조명 학술대회 개최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본부는 보은군과 함께 2020년 6월 26일, 보은군 속리산 관문에서 '신미대사가 한글 발전에 끼친 영향과 의미'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글 공로자로서의 신미대사를 조명하고, 한글의 가치와 의미를 확산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자리로서 한글 단체와 보은군이 뜻을 모아 마련되었다.

학술대회 기조 강연을 맡은 최용기 몽골민족대학교 부총장은 15세기 조선 백성들의 큰 스승이자 언어 전문가인 신미대사의 생애와 사상을 설명하면서 불경 연구와 교육의 최고 권위자였으며 백성들에게 불경을 한글로 널리 보급한 실천가로서의 면모를 소개하였다. 아울러 월명 스님의 '조선 초기의 불교와 신미대사', 정우영 동국대 명예교수의 '신미대사와 불교경전의 언해 사업',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장의 '훈민정음 보급과 신미대사의 역할', 흥현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교육부장의 '신미대사 관련 문헌 연구' 등의 주제 발표를 통해 훈민정음 보급 공로자로서의 신미대사의 역할을 다양한 각도로 조명하였다. 토론자인 이용근 공주대 교수는 한글 보급에 영향을 끼친 신미대사의 역할과 한글의 독창성 및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설립될 한글문화관이 한글을 소리치유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세

계적인 케이-메디웰 (K-Mediwell) 관광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들은 종합 토론 시간을 통해 신미대사가 20여 년 은거하면서 수양한 복천사가 있는 보은군을 중심으로 한글 한류 문화를 확산하는 데 뜻을 모았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이번 학술대회는 한글문화관 건립에 이론적 기초를 논의하는 자리로서 앞으로 한글문화관을 세우는 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조경숙의 존중한 잔소리]

문장에서 호응이란 어떤 특정한 말 다음에는 반드시 어떤 특정한 말이 따르는 제약적 쓰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결코'에 따라오는 서술어는 부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는 결코 이곳에 오지 않을 것이다.'처럼 써야 합니다. 또 '간절히 바라건대'를 뜻하는 '제발'에는 '제발 비가 왔으면' 또는 '제발 믿어주세요'처럼 청원을 뜻하는 말을 써야 하고 '아마'에는 '아마 그녀는 그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것이다.'처럼 추측을 뜻하는 말을 써야 합니다. 또 주어와 서술어가 서로 호응을 해야 바른 문장이 됩니다.

아래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에 문제가 있는 문장입니다. '그가 당한 배신과 분노는 그의 결혼까지 포기하게 몰아갔다.' 이 문장에서는 '배신'과 '분노'를 '당하다'라는 하나의 서술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신'은 나 자신이 행한 행위가 아닌 상대가 나한테 행하는 행위입니다. '당하다'는 어떤 상대에게 맞거나 해를 입은 경우에 씁니다. 또는 겪거나 놀림을 받을 때도 '당하다'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는 누군가에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분노하여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분개하여 몹시 성을 냄'을 뜻하는 말로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배신과 분노를 하나의 서술어로 묶어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두 낱말에게 알맞은 말을 써서 적절하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배신'은 당하는 것이고 분노는 자신이 느낀 감정이므로 '그가 당한 배신과 그가 느낀 분노는 결혼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라고 고쳐 쓸 수 있습니다.

01 국어문화 마당	03 - 13 글 마당		01, 02 칼럼 마당
▶ 국어 관련 소식	04 "미스터 트롯"에 빠지다 (서옥경)	08 풍경 1 (김영식)	▶ [조경숙의 존중한 잔소리] ▶ [정영호의 우리말 바르게 쓰기]
	05 마식령[馬息嶺]의 추억 (김창석)		

* 이 신문은 국어문화 운동 현장의 소식과 글쓰기 회원의 습작을 실는 매체입니다. 작품 중에 어문 규정에 어긋난 점이 있더라도 습작 단계임을 감안하여 원고대로 실습니다.

[정영효의 우리말 바르게 쓰기] 청와대 편 (제11회)

국어에는 민족적 정체성과 국가 이념, 즉 나라의 혼(魂)이 담겨있다. 국가의 혼을 관리해야 할 첫째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한국어를 정확하게 쓰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모든 언중도 따라서 한국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 누리집에 올라 있는 문재인대통령의 말과 글에는 우리말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자주 눈에 띈다.



<누구끼리 공조했는가? 지금 계신이 계시는가?>

아래 문장(1)은 2020년 6월 10일자 ‘아프리카 가봉 해상에서 피랍되었던 우리 국민이 37일 만에 가족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문장(2)는 같은 연월 6일자 ‘제65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 가운데 일부분을 옮겨 온 문장이다.

(1) ①관계 기관 사이에 긴밀히 ②공조하고 가봉, 나이지리아, 프랑스 정부와도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며 석방을 협의해 왔습니다.

(2) 이곳에 잠들어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낸 분들입니다.

문장(1)에서 부사어 ① “관계 기관 사이에”가 수식하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고, 서술어 ② ‘공조하다’와 호응하는 주어가 없다. ① “관계 기관 사이에”를 ‘관계 기관이’로 하여 주어로 해야 서술어 ② “공조하고”와 호응하는 문장이 된다. (관계 기관 사이에 → 관계 기관이)

문장(2)에서, “계신”은 동사 ‘계시다’의 어간 ‘계시-’에 어미 ‘-ㄴ’이 결합한 형태이다. 관형사형 어미 ‘-ㄴ’은 과거 시제를 나타낼 때 쓴다. 인용문은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에 국립 대전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애국 영령과 국가유공자들’을 말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과거 시제가 아닌 현재 시제로 써야 한다.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동사의 관형사형 어미는 ‘-ㄴ’이 아니라 ‘-는’이다. 따라서 “계신”은 ‘계시는’으로 바뀌어야 우리 말법에 맞는 표현이 된다. (계신 → 계시는)

<글씨를 남겼나 ‘글귀’를 남겼나? 간호병과장만 역임했나?>

아래 문장(1), (2)는 2020년 6월 6일자 ‘제65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 가운데 일부분이다.

(1)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씨는 ‘위국헌신 군인본분’이었습니다.

(2) 이곳에 잠들어 계신 ①故김필달 대령 역시 1950년 11월 간호장교로 임관해 6·25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했고, 간호병과장을 ②역임했습니다.

문장(1)에서 “글씨”는 ‘쓴 글자의 모양’을 의미한다.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은 ‘글자의 모양’이 아니라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글귀’일 것이다. (글씨 → 글귀)

문장(2)에서, ①“故김필달”에서 ‘故’ 자만 구태여 한자로 표기할 필요가 없다. 성명 앞에 한글로 ‘고’ 자를 쓰더라도 누구나 죽은 사람을 나타내는 말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고’는 관형사로 독립된 단어이므로 뒷말과 띄어 써야

한다. (故김필달 → 고 김필달)

② “역임했습니다”에서 ‘역임하다’는 ‘여러 직위를 두루 거쳐 지내다’는 뜻으로 단 하나의 직명을 알릴 때에는 말하지 않는다. (역임했습니다 → 지냈습니다)

<‘백신’이 개발하는가, 백신을 개발하는가? 여건이 녹록치 않은가, 녹록지 않은가?>

아래 문장(1)은 2020년 5월 26일자 ‘국무회의(영상) 모두 발언’ 가운데, 문장(2)는 같은 연월 25일자 ‘2020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 가운데 일부분이다.

(1) 그 위험은 ①백신이 ②개발 ③때까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2) 특히 내년 세입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하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

문장(1)에서 주어인 ①“백신이”와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고, 명사 ②“개발”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없다. 명사 ②“개발”을 동사 ‘개발되다’의 관형사형 ‘개발될’로 바꿔 주어 ①“백신이”의 서술어 역할과 명사 ③“때”의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해야 올바른 문장이 된다. 또 다른 방법은, 명사 ②“개발”을 타동사 ‘개발하다’로, 주어 ①“백신이”를 목적어 ‘백신을’로 바꾸는 방법이다. (백신이 개발 때까지 →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백신을 개발할 때까지)

문장(2)에서, 밑줄 친 “녹록치”는 ‘녹록하지’의 준말이다. 한글 맞춤법(제40항)에는 ‘하’ 가운데 ‘ㅏ’만 줄고 ‘ㅎ’은 남는 경우와 ‘하’가 통째로 줄어드는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 기준은 ‘하’ 앞에 오는 받침의 소리에 따라 결정된다. 국어의 자음 가운데 끝에 오는 소리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뿐이고 이 외의 자음이 끝음절에 오면 ‘ㄱ, ㄷ, ㅂ’ 중 하나로 바뀌어 소리가 난다. ‘하’ 앞에 받침이 없거나 받침의 소리가 [ㄴ, ㄹ, ㅁ, ㅇ]이면 ‘ㅏ’만 줄고 ‘ㅎ’이 남아 뒤에 오는 말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변한다(예: 무능하다 → 무능ㅎ다 → 무능타, 부지런하다 → 부지런ㅎ다 → 부지런타). 또, ‘하’ 앞 받침의 소리가 [ㄱ, ㄷ, ㅂ]이면 ‘하’가 통째로 줄어든다(예: 넉넉하지 않다 → 넉넉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 깨끗지 않다, 답답하지 않다 → 답답지 않다). 인용문의 “녹록하지”는 ‘하’가 통째로 줄어 ‘녹록지’로 써야 바른 표기가 된다. (녹록치 → 녹록지)

<‘제도로써’인가, 제도로써인가? ‘추경안에 대해’ 심의하는가, ‘추경안을’ 심의하는가?>

아래 문장(1)은 2020년 6월 10일자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기념사’ 가운데, 문장(2)는 같은 연월 1일자 ‘제6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 가운데 일부분이다.

(1) 제도로써의 민주주의가 잘 정비되어 우리 손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단체장을 뽑고, 국민으로서의 권한을 많은 곳에서 행사하지만, 국민 모두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2) 금주 중 제출 예정인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장(1)의 밑줄 친 부분에서, 조사 ‘로써’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인용문에는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인 '로써'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또 본래 우리말에 관형격 조사 '의'가 없었으나 구한말 개화기에 지식인들이 일본말 '의'를 '의'로 받아들이며 '의'가 퍼지기 시작했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쓰임을 21개로 소개하고 있으나 일본말 '의'는 쓰임이 40개가 넘는다.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무조건 '의'를 빼도 그다지 불편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인용문에서도 '의'를 삭제해도 문맥이 자연스럽다. (제도로서의 → 제도로써)

문장(2)의 밑줄 친 “추경안에 대해”에서, ‘에 대하다’는 ‘무엇을 대상으로 삼아’의 뜻으로 사용되므로 언제나 대상자나 대상물을 상정하고 그 대상을 객체로 인식한다. 그러나 조사 ‘에’가 이런 대상을 나타내기 위한 부사격 조사이므로 보통은 ‘대해’가 군더더기가 되기 쉽다. 인용문에서는 ‘추경안’이 서술어 ‘부탁하다’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인용문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면 매끄러워질 것이다. (금주 중…부탁드립니다. → 금주 중 제출할 예정인 추경안을 국회는 조속히 심의하여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을 통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래 문장(1)과 (2)는 2020년 6월 9일자 ‘국무회의(영상) 모두 발언’ 가운데 일부분이다.

(1)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지원책과 함께 위기 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①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기 극복에는 성공했지만 그때마다 소득 격차가 벌어졌던 역사적 ②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장(1)에서, ‘통하다’는 어느 지점이나 시점을 지남을 기본으로 삼는 낱말이므로 매개할 수 있는 경우 곧 거칠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다. 인용문에서는 ‘정부는…지원책과 …보호하는 정책’을 ‘수단이나 방법’으로 일자리를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기 위해서 ‘통하다’는 말을 쓰는 것은 일본식 표현이다. 밑줄 친 ‘정책을 통해서’를 ‘정책으로’로 바꾸면 우리말다운 표현이 된다. (정책을 통해서 → 정책으로)

문장(2)의 밑줄 친 ①“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외국어 ‘글로벌(global)’은 우리말 ‘국제적’ 또는 ‘세계적’으로 쓰더라도 본래 의미가 손상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외국어를 한글로 썼다. ‘금융위기’는 복합어가 아니므로 ‘금융 위기’로 띄어 쓴다. 또 국어에서 ‘가지다’는 생각이나 물건을 가슴이나 몸 등에 지님을 나타내는 말이다. 밑줄 친 ②“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처럼 쓰는 것은 영어의 ‘have’ 동사를 직역한 형태이다. ‘경험이 있습니다’ 정도로 바꾸는 것이 우리말다운 표현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 국제적 금융 위기/세계적 금융 위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 경험이 있습니다.)

<IMF, GDP, 기업의 유턴, 패키지 프로그램, 매뉴얼, 타이밍 등>

아래 문장들은 청와대 누리집 ‘대통령의 말과 글’ 가운데 일부분을 옮겨 온 문장이다.

(1) ①IMF는 올해와 내년의 ②글로벌 GDP 손실 규모가 일본과 독일 경제를 합친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 2020. 5. 25.)

(2) 안심 투자처와 혁신역량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살려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제6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 2020. 06. 01.)

(3) 항공업과 해운업에 이어, 어려움에 처한 기간산업들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 원을 마련했고, 140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 모두발언; 2020. 05. 21.)

(4) 학교에서 확진자나 의심증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매뉴얼에 따라 비상대응 체계가 신속히 가동될 것입니다. (국무회의(영상) 모두발언; 2020. 05. 26.)

(5)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 2020. 5. 25.)

(6) 한편으로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①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기 위한 ②국가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제6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 2020. 06. 01.)

말이나 글은 상대방에게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누가 듣거나 읽어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거나 써야 한다. 특히 전문용어는 그 직종에 종사하는 전문가에게는 일상어이겠지만, 비전문가에게는 낯선 용어이다. 줄인 말, 생소한 말은 읽는 속도와 이해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므로 쓰는 이는 읽는 이를 위해 전문 용어나 줄인 말을 꼭 설명해 주어야 한다. 「국어기본법」에서도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법 제14조)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제11조).

문장(1)에서 ①“IMF”는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줄인 말로, 우리말 ‘국제통화기금(國際通貨基金)’으로 번역돼 사용되고 있다. ②“글로벌 GDP”에서 “글로벌”은 영어 ‘global’을 그대로 한글로 쓴 것이고, “GDP”는 ‘Gross Domestic Product’를 줄인 말이다. ‘global’은 우리말 ‘국제적’ 또는 ‘세계적’으로 바꿔 쓰더라도 본래의 의미가 그대로 전달된다. 또 ‘GDP’는 경제학 용어에서 ‘국내총생산’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설령 일반인에게 낯익은 용어라 하더라도 처음 한 번은 꼭 알려 주어야 한다. {IMF → 국제통화기금(IMF). 글로벌 → 국제적/세계적, GDP → 국내총생산(GDP)}

문장(2)에서, 밑줄 친 “유턴”은 ‘U-turn’을 한글로 쓴 것으로 국립국어원에서는 이 용어를 문맥에 따라 ‘① 되돌기, 되돌리기 ② 선회’로 쓰도록 우리말로 다듬은 말이다. 인용문에서도 ‘되돌리기’ 또는 ‘선회’ 정도로 쓰더라도 본래의 의미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어 보인다. (유턴 → 되돌리기/선회)

문장(3)에서 밑줄 친 “패키지 프로그램”은 영어 ‘package program’을 그대로 한글로 쓴 것이다. 대개 패키지(package)는 물건을 보호하거나 수송하기 위한 포장 용기를 뜻하지만, 여러 가지를 한 묶음으로 꾸려 놓은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패키지’를 ‘묶음’으로, ‘패키지 상품’을 ‘꾸러

미상품'으로, '프로그램'은 문맥에 따라 '계획' 또는 '계획표'로 순화해 쓰도록 권장한 바 있다. 《IT용어사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는 '패키지프로그램'을 '각각은 독자적인 용도로 개발되었지만, 특정 업무를 위해 서로 연관되어 함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의 제품으로 통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인은 이해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인용문에서는 '묶음계획' 정도로 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패키지프로그램 → 묶음계획(package program))

문장(4)와 문장(5)에서, 밑줄 친 "매뉴얼"과 "타이밍"은 각각 영어의 'manual'과 'timing'을 한글로 표기한 것으로 이는 각각 우리말 '설명서/안내서', '시기'로 표기하더라도 본래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 (매뉴얼 → 설명서/안내서, 타이밍 → 시기)

문장(6)에서 ①"포스트 코로나"는 '후기 코로나'로, ②"국가프로젝트로서"에서 외국어 "프로젝트"는 국립국어원에서

'(연구)과제/사업'으로 순화하여 쓰도록 권장한 말이다. 또 조사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그런데 인용문에서는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인 '로써'를 쓰는 것이 적합한 표기이다. {포스트 코로나 → 후기 코로나, 국가프로젝트로서 → 국가 (연구) 과제/사업으로써}

말이나 글은 듣거나 읽는 상대방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청와대 누리집에 올리는 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하는 글인가? 아마도 그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일 것이다. 그렇다면 특정 부분의 전문용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의 비전문가까지 널리 알 수 있도록 쉬운 말로 표기해야 할 것이다.

“미스터트롯”에 빠지다

글/서옥경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다가 젊은 남자 가수가 부르는 트로트에 단 한 번에 꽂혔다. 편안하게 이야기하듯 들려주는 노래에 감정이입이 되어 자석에 끌리듯 빠져들었다. 연예인 같지 않은 소박하고 단정한 차림을 한 낯선 가수의 목소리가 지난날을 소환했다. 화려한 율동도 눈에 띄는 제스처도 없이 부르는 노랫말이 또박또박 들려왔다. 다시 듣고 싶어 제목을 적어 두고 가사를 찾아보면서 미스터트롯과 사랑이 시작되었다. 평소 지나쳤던 종편 TV 채널에서 뒤늦게 발견한 프로그램이 바로 “내일은 미스터트롯”이다. 차세대 트로트 스타를 탄생시킬 신개념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흔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챙겨본 프로그램이다. 놓쳐버린 전반부는 재방송을 찾아볼 정도로 열렬 시청자가 되었다. 35.7%라는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방송은 지난 3월에 끝났다. 아쉬운 마음을 미스터트롯 Top 7으로 불리는 결선에 오른 일곱 명이 출연하는 후속 프로그램으로 달래고 있다.

트로트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장르로만 여기고 아예 안중에도 없었다. 내 나이가 노인에 속하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데도 말이다. 이른 아침 산책하다 보면 트로트를 크게 틀고 다니는 사람들과 가끔 마주칠 때가 있다. 대부분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취향도 천태만상이려니 했다. 그런데 “내일은 미스터트롯” 덕분에 소위 뽕짝으로 비하된 트로트가 좋아졌다. 음치는 아니지만, 노래와 담을 쌓은 지 수십 년째다. 동네마다 눈에 띄는 것이 노래방이고 노래 교실이지만 먼 산 바라보듯 했다. 그랬던 내가 어느새 트로트를 흥얼거리거나 가사를 음미해보곤 한다. 슬픔, 기쁨, 애환, 이별, 상처, 고통 등 수많은 사연이 녹아든 노랫말에는 우리의 정서가 양념처럼 잘 버무려져 있다. 감동을 주는 목소리에 반해 시청하기 시작한 “내일은 미스터트롯”은 점점 가수들의 됴됨이에 이끌려 이제는 Top 7의 진짜 팬이 되었다. 늦바람이 무섭다더니 그들을 향한 사랑이 식을 줄 모른다. 연예인을 좋아하며 열광하는 소녀 팬이 따로 없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그리운 것

일까. 일면식도 없는 손자와 아들뻘 되는 가수들이 자꾸만 궁금해지니 내 속의 나를 나도 모르겠다. 황혼에 누군가 좋아하는 대상이 있어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젊은 세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리라.

원픽(one pick)이라는 단어가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된다. 수많은 참여자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한 명을 뽑아서 응원하는 것을 나의 원픽이라고 한다. ‘내일은 미스터트롯’은 어마어마한 경쟁률인 15000 대 1을 뚫고 예심을 통과했던 101명이 본선에 진출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 같은 오디션이다. 결승전에 가까이 갈수록 시청자들이 서로 자신의 원픽을 내세우며 열띤 응원을 했다. 다섯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살면서 군고구마 장사 아르바이트도 하며 가수의 꿈을 키웠던 임영웅, 이십여 년 무명 생활로 고통이 나는 지하 셋방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조각 미남 장민호, 어릴 적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와 살며 방황했던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영화 ‘파파로티’의 주인공 김호중, 아들의 이혼으로 우울했던 손자를 노래자랑대회에 데리고 다녔던 할아버지 덕에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게 된 14세 정동원 등 끝도 없는 그들의 서사는 노래와 함께 많은 사람을 울리고 웃게 했다.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최종회 실시간 문자투표에서 7백만 명이 넘는 접속으로 방송국 전산망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결승전에 진출한 일곱 명 중에서 진선미와 순위를 결정하는 시간이었다. 결국, 방송은 그다음 주로 연기되어 결과가 발표됐다. 운 좋게도 나의 원픽이 최고의 자리인 진을 차지했다. 그의 이름은 ‘임영웅’이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커서 영웅이 되라고 지어준 이름이란다. 동네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착실하고 성실하게 보이는 청년이다. 어릴 적 사고로 얼굴을 다쳤지만, 치료비가 없어 뺨에 흉터 자국을 훈장처럼 지니고 있다. 처음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의 노래는 준결승전에서 불렀던 ‘보랏빛 엽서’다. 떠나버린 연인에 대한 추

역과 사랑을 잊지 못하는 시 같은 노래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엔/눈물로 써 내려간 얼룩진 일기장엔/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옛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가사를 30세 청년의 타고난 감성의 목소리에 실어 흠뻑 젖어 들게 한다. 그 외에도 수많은 트로트를 임영웅이 커버하면 한 단계 격상된 노래가 되어 재탄생된다. 한 곡을 위해 수백 번 연습하는 연습벌레라고 전해진다.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듯하지만, 오랫동안 준비하며 기다린 결과물이다.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자의 말처럼 미스터트롯 경연장은 그야말로 마음껏 즐기는 축제의 장이었다. 출연 가수의 노래와 사연에 관객과 시청자들이 환호와 응원을 보내며 열기를 보탤다. 우리 세대와 달리 즐길 줄 아는 젊은 세대가 부럽고 대견스러워 바라만 봐도 저절로 흥이 났다. 승자와 패자가 뒤바뀌는 불꽃 튀는 경쟁에서 결과에 승복하며 서로 부둥켜안고 축하해주는 장면은 코로나의 우울함을 말끔히 씻어주었다. 최선을 다해 힘든 과정을 통과한 마지막 결승 진출자 Top 7은 모두 진정한 우승자다. 가장 어린 정동원에게 나머지 여섯 명은 삼촌이고 형이고 든든한 지원자다. 동원이는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장민호와 한팀이 되어 준결승전에서 대결을 펼쳤다. 트로트계의 신사로 알려진 장민호가 아들 같은 동원이에게 경연에도 불구하고 양보하며 파트너를 돋보이게 한 무대는 아티스트의 참모습으로 오래 기억될 것 같다. 물먹은 화초처럼 나날이 눈에 띄게 키가 자라는 동원이를 보면 손

자를 보듯 행복하다. 정동원은 경남 하동에서 어린 나이에 독학으로 노래와 색소폰을 익혀 시청자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다. 해맑은 웃음과 순박하면서도 장난기가 가득한 동원이의 눈빛에서 우리의 미래를 가늠해본다. 열네 살 소년이 인생을 노래하는 '여백'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호소력이 있다.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마음에 여백이 없어서/인생을 쫓기듯 그랬네/마지막 남은 나의 인생은/아름답게 피우리라."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해 좌절하는 젊은이들은 미스터트롯 Top 7을 통해 희망을 보았으리라. 비록 아르바이트로 힘들게 살아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꿈은 이루어진다고 그들의 삶이 말해준다. 가난도 실패도 그들에게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못했다.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차근차근 실력을 쌓으면서 기회를 기다려왔다. 그들은 노래 실력만큼이나 훈훈한 무대 매너로 사람 냄새를 풍긴다. 치열한 경연에서도 각자도생이 아닌 격려와 배려를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젊은이들이다. 한 지붕 밑에 사는 가족처럼 티격태격하다가도 서로 보듬어 주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흐뭇해진다. 환상적인 케미를 기대하면서 매주 설렘으로 그들의 프로그램을 기다린다. 지금은 아이돌 팬덤 부럽지 않은 국민가수로 급부상했지만 계속 성장해가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싶다. 요즈음 나의 멘토는 미스터트롯 Top 7이다. 노래를 배우고 삶을 배우니 이보다 더 좋은 스승이 있을까 싶다. 선한 에너지로 살맛 나게 하는 미스터트롯 Top 7으로부터 언제 헤어날지 기약이 없다.

마식령[馬息嶺]의 추억

글/김창석

한계령은 장덕수 작사 한덕규 작곡에 시적 비유가 넘치는 가요다. 이 노래를 부른 양희은은 탁월한 공명을 가진 청아한 목소리로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였다. "저 산은 내게 우지 말아 우지 말아하고,/발 아래 젖은 계곡 첩첩산중/저산은 내게 잊으라 잊어 버리라 하고/ 내 가슴을 쓸어내리네/ 아 그러나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가 파/ 이 산 저 산 눈물/ 구름 물고 다니는 바람처럼"

3년 전 아들이 동해 묵호에서 지낼 때 한계령을 몇 번 넘나들면서 차창을 통해 느꼈던 것이 있다. 남쪽에는 한계령이면 북쪽 땅 내 고향에 있는 마식령이 떠 아롱거린다. 2003년 이산가족 고향 방문할 때 호주에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중국을 거쳐 평양에서 하루 자고 내 고향 원산으로 가려면 마식령고개를 넘어야 했다. 그래서 평양에서 2-3일을 묵어야 했다.

북한당국이 전하는 가족소식. 호텔방으로 안내된 리봉일이 와서 조경화 참사와 박영철이 왔다고 했다. 박영철은 가족상봉 담당책임자이고 조경화 참사는 그의 상관이었다. 우리 일행은 한자리에 앉아서 수인사를 나누었다.

— 먼 길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시는 동안 불편하시더라도 편안히 지내십시오.

이런 수인사가 끝나고 나서 나를 바라보며 하는 말이

— 김 선생님 미안해서……. 동생 봉재와 학시는 세상을 떠나셨습

니다. 제수씨 한 분은 평양에, 또 한 분은 원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란 말인가. 가슴이 쿵 내려앉으며 온몸에 힘이 빠져 소파에 기대었다. 겨우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니 가슴이 무너진 자리에는 실망과 허탈감이 밀려 들어와 한껏 들떠있던 마음을 서서히 잦아먹기 시작했다. 오장육부가 파헤쳐지는 고통이 이보다 더할까? 봉재와 학시가 죽었으면 춘재와 기옥이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그 대답은 매우 애매했다.

...어디 살고 있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되서 그러겠지.

라 여기고 더 문기를 단념하였다. 사실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었다.

...내일 제수씨를 만나면 그 때 알 수 있겠지.

실날같은 희망을 부여잡고 고통이 잦아먹고 있는 몸뚱이를 겨우 지탱했다. 같이 간 일행의 마음까지 무겁게 할까봐 마음을 추스르고 담담한 표정을 보여 주려고 애썼으나 몸이 따라주질 않았다. 아내는 망연자실하여 털썩 주저앉는 내 옆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리봉일씨 역시 안타까운 시선을 보냈다. 그들은 우리를 호텔방으로 부축했다.

...아! 이 순간을 기다리며 실날같은 희망을 가랑잎 같이 마른 가

숨에 끼안고 살아왔는데. 이 사람들아 그래 그리 명이 짧단 말인가! 내 발걸음이 늦었구나. 이 형이 그렇게 보고 싶어서, 그렇게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어렵게 겨우 찾아 왔는데 벌써 먼저들 떠나다니 이 형은 어떻게 하라고?

눈물이 많은 나는 아내의 눈을 피하여 어린아이 같이 엉엉 울었다. 도연명의 시 구절이 떠올랐다.

덤불 헤치며 폐허를 걸어본다
무덤 사이를 맴돌며 걷다가
옛 사람 살던 곳에 발길 머문다.
우물과 부엌 터만 남아 있고
뽕나무 대나무는 썩은 그루터기만 남았네.
나무꾼에게 물어본다.

— 그 사람들 모두 어디로 갔소?

나무꾼이 내게 하는 말이

— 다 죽고 남은 사람 없소.

한 세대 만에 세상이 바뀐다더니 그것은 정말 빈말이 아니었다. 어제와 엇그제는 흥분과 설렘으로 밤잠을 설쳤지만 오늘은 밤새 역장이 무너져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가슴에 불이 나는 듯, 심장을 쥐어짜는 듯하여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 몸부림쳤다. 소식도 모르고 이도저도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나는 낮지 않은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심중을 편히 하려 생각을 고쳐보아도 이 세상 천지에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허무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은 어떻게든 메울 길이 없었다. 평양에서의 세 번째 밤이었다. 다음날 오후, 생전 처음 만나는 제수씨(봉재의 처)와 세 조카들이 왔다. 안내원 리봉일을 따라 응접실로 나갔다. 할머니 한 분과 젊은이가 소파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시선을 보내왔다. 큰 조카 용호, 둘째 관호와 막내 철호를 앞에 앉혀 놓고 쳐다보니, 그 세 얼굴에서 동생 봉재의 모습이 조금씩 스며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텅 빈 내 마음 속에서 긴 동면을 취하던 부모형제에 대한 추억들이 하나하나 깨어나는 것 같았다. 그들을 앞에 두고 앉아 '무성했던 나뭇잎도 가을이 되면 낙엽되고 거름되지. 새 봄이 오면 다시 파릇파릇 연두 새싹이 돋아나는 것이 섭리가 아닌가. 봉재는 가고 없지만 너희들이 있으니 말이다.' 하는 생각으로 나 자신을 다독였다. 옆에 서 있는 아내를 소개시키고 자리에 앉았다. 조카 철호도 인사를 했다. 이들을 바라보며 동생 봉재를 생각하니 역장이 무너지고 정신이 혼미하였다. 애써 마음을 가다듬고 그들에게 들길 듯 말 듯 한숨을 쉬며 말했다.

— 용호, 관호, 철호 자네들이 여기 있으니 여기가 내 고향이지. 이제는 자네들이 내 마음의 고향일세. 고향이 별것인가, 내 마음의 향수를 달래주는 곳이지.

생전 처음 상봉하는 제수씨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시키기 위해 누렇게 색 바랜 70년이 된 사진을 꺼내어 놓았다. 사진 속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20대 초반 모습이고, 봉재는 두 살이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제수씨의 메마른 음성이 들려왔다.

— 지난 5월에 돌아가셨어요.

하며 동생 봉재의 죽음을 알려주었다. 적이 실망한 눈치랄까? 나를 바라보는 제수씨의 얼굴에는 몇 달만 좀 일찍 오셨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깃들여져 있었다. 이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으며 정신이 아득해졌다.

— 아버님은 57세에 돌아가셔서 원산 할아버지 곁에 모시었고, 어머니는 73세에 돌아가셔서 평양 공동묘지에 모셨습니다. 아주버님(학시)은 결혼해서 두 아들에 딸 하나를 두고 잘 살았는데 오래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가족들은 원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련님(춘재)과 기옥 아기씨는 어려서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만…….

하면서 제수씨는 메마른 음성으로 말끝을 채 여미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순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커를 이루며 내려앉아 숨통이 막혔다. 칠십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슬프고 가장 비극적인 일이었다. 끔찍한 이 소식을 차라리 모르고 살았더라면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휴전선이 가로 막혀 나만 홀로 외롭구나 하며 서러워 하다가도 언젠가는 만나겠지 하는 희미하고 가느다란 희망에 기대어 살 수 있었다. 부모님들은 연세가 있으시니 기대 반 우려 반 하였으나 동생들조차 하나도 이 세상에 없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인가! 도대체 누구를 만나러 이렇게 먼 길을 왔단 말인가! 만나야 할 사람은 모두 저 세상으로 가고 없었다. 눈물도 나오지 않고 말라붙어 버렸다. 나는 주저앉았다. 나 혼자 황량한 벌판에 힘없이 서 있는 것 같았다.

…하늘도 무심하고 야속하시지. 봉재를 6개월 전에 부르셨다니, 일 년 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았으련만……. 내게 한 형제만이라도 남겨두셨더라면 마음이 이렇게 적막하지는 않을 것인데…….

그날 밤은 너무나 힘든 밤이었다. 지난날 동생들과의 추억들이 아련한 눈송이처럼 허전한 가슴속에 쌓였다. 원산 중청리 절골寺마을 고샅길을 누비며 동네 개구쟁이들하고 뛰놀던 때의 모습. 오줌 싸고 자기보다 큰 키를 뒤집어쓰고 이웃집에 소금 얻으러 가던 엉거주춤한 춘재의 모습. 내가 인민군에 갔다 와서 칩거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밖의 소식을 자상히 전해주며 마음을 편하게 해주던 봉재의 모습 등. 그래도 이 형제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아 나를 맞이할 것이라고 기대에 부풀어 찾아 왔건만, 가면 다시 올 수도 없는 길을 모두들 서둘러 떠나가고 세상에는 나만 홀로 남은것이다. 이렇게 평양에서 맞이하는 네 번째 날이 지나갔다.

내 고향 원산으로

오늘은 원산에 있는 제수씨와 조카를 만나러 가는 날이다. 아침을 먹는 등 마는 등 하고 있는데, 일행 중 한층식이 내가 안쓰러웠던 지 위로의 말과 눈빛을 보냈다. 어제 가족 상봉 할때 내 얼굴빛이 파랗게 질리다 못해 가짓빛으로 잿아들더라며 그 순간 자신도 가슴이 미어져 오더란다. 그들의 속마음을 전해 듣고는 나로인해 우리 일행의 마음까지 어둡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드디어 북측의 안내인 박영철과 함께 원산을 향해 출발했다. 어제 난생 처음 느꼈던 그 허망한 마음과 어린시절 뛰놀던 고향 땅을

밟게 된다는 희망이 뒤엎긴 채로 길을 나섰다. 그래도 고향이라는 단어가 나를 기쁘고 설레게 만들었다. 이런 내 마음이 한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 속으로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을 남에게 들킬까 걱정되었다. 가는 듯 끌려가는 듯, 자의 반 타의 반, 슬픔인지 기쁨인지,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 주워 담을 수도 없었다.

회색빛 하늘에 눈발이 희끗희끗 먼지처럼 휘날렸다. 스산한 겨울 날씨였다. 원산으로 가는 길은 노후된 콘크리트 고속도로라 속력을 내기 어려운지 빨리 달리지 못했다. 평양을 벗어나도 자동차를 별로 볼 수가 없었다. 인적조차 드물었다. 밭에서 늦게까지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과 길가에 군데군데 세워진 트럭을 타고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창밖을 내다보니 어슴푸레한 하늘 아래 여기저기 쓸쓸하고 황폐한 마을이 생기를 잃은 채 가로 누워있었다. 가슴엔 울컥 슬픔이 밀려들었다.

— 아! 이것이 내가 오십여 년 동안 그리워하던 고향이란 말인가?

내가 기억하던 고향은 이런것이 전혀 아니었다. 내 고향은 훨씬 더 아름다웠다. 그러나 무엇이 그렇게 아름다웠던가? 그 옛날 고향도 아마 그랬을지 모른다. 아니 고향은 원래부터 이 모습이었다. 단지 달라진 것은 내 심경일 뿐이다. 왜냐하면 나의 이번 귀향은 결코 즐거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향 산천인들 부모형제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봄부터 땀 흘려 가꾼 곡식을 갈무리하고 난 풍경은 삭막한 느낌이 들었고 마음이 무거웠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산골 농촌의 풍경들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도 나와 다르지 않았던지 내내 쓸쓸한 표정이었다. 오히려 나는 향수에 잠기는 것이 낯겠다고 생각했다.

지난날의 추억 속으로

오십여 년의 세월 속에 묻어둔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눈 감으면 꿈을 꾸는 듯 어느새 내 곁에 다가와 있었다. 몸은 비록 자동차 속에 있어도 마음은 한 걸음에 달려가 어린 시절 뛰놀던 고향 마을 고샅길에 가 있었다. 아직 봉재, 춘재, 학시, 기옥은 어려 내가 맏이로서 집안일을 도와드려야만 했다. 나보다 세살이 위인 막내 고모님도 어머니를 도와 드렸다.

초등학교 시절이었다. 점심 먹고 나서 밖에서 아랫마을 친구들과 편을 나눠 야구를 하기로 약속했었다. 그런데 나는 어머니 다리미를 도와 드려야만 했다. 빨리 도와드리고 나가 놀고 싶어 마음은 급한데 어머니는 다리미를 잡고 두어 번 까불어 검불을 뒤집고 사기 대접의 물을 한 모금 옷가지 위에 ‘푸우우’ 안개처럼 뿜으면서 ‘조금만 참아라.’ 하시던 기억이 떠올랐다. 되살아난 숯불이 별경게 이글거린다. 거기다 대고 다시 ‘후우’ 입김을 불어 불기운이 좀 더 일어나게 하신다. 별건 숯불에 얼굴이 후끈거린다. 손잡이가 긴 다리미가 이불 호청을 타고 미끄러져 내 턱 밑까지 왔다 갈 때마다 후끈한 화기가 얼굴을 별경게 물들인다. 이 때 풀 먹인 이불 호청에서 뿜어나오는 따뜻한 김이 얼굴을 덮는다. 가슴으로 들이 마시면 기분이 좋았다. 손으로 잡고 있는 호청에 힘을 주어 올렸다 당겼다 하는 동작은 어머니가 잡고 있는 다리미의 움직임과 박자를 맞추어야 한다.

지금 생각하면 그 때 그 순간을 회상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훈훈한지 모른다.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어머니는 나를 집안의 맏아들이라고 각별히

마음을 쓰셨다.

그런데 또 이번엔 이 자식이 어디로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던 그 오랜 세월 동안 가슴속에 얼마나 많은 한을 쌓으셨을까? 그럴 때마다 그 암자의 스님을 자주 찾으셨겠지. 그 부처님의 가피력加被力이 크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소원을 빌고자 공양미와 불전을 퐁퐁 챙겨 암자를 찾으셨다. 대자대비 자비로우신 부처님 부디부디 우리 맏이 德在 좀 가피加被로 굶어 살피 주십시오. 두 손 모아 얼마나 간절하게 빌고 또 빌고 하셨을까? 이 자식을 가슴에 묻고, 그 암자 길에 한이 서린 눈물을 얼마나 뿌리셨을까? 무거운 발걸음은 어찌 떼고 집에 오셨을까?

휴게소

그런 저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다.

— 자동차 하부 바퀴에 이상이 있어서 손을 보고 가야 하겠습니까.

하면서 들린 곳이 이층집 휴게소 앞마당이었다.

—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 약 3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저기 가서서 커피 한 잔씩들 하고 오시지요.

우리는 휴게소 건물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어두워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저 멍뚱히 서 있었다. 그 때 이층에서 종업원 아가씨가 내려와서

— 어두워서 불편하시지요?

하면서 반갑게 맞아 주었다. 전기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뻔히 알고 있었기에 왜 전기불을 켜지 않느냐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커피를 시켜 마시는데 따끈하지 않고 미지근해 맛은 없었으나 기분 좋게 마셨다. 커피 값은 한잔에 1\$였으나 고향의 정을 생각하면 비싸게 느껴지지 않았다. 어떤 불편한 일도 좋기만 했다. 고향을 본다는 희망으로 들떠 있어서 모든 것이 긍정적이었다. 아가씨가 커피 맛이 어떠냐고 물어왔다.

— 커피 맛이 좋습니다. 고향 맛이 더 풍깁니다.

했더니 미소를 지으며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다. 원산이라고 하면서 열아홉 살에 떠나서 일흔이 되어서야 돌아오는 고향이라고 했더니 아내의 고향도 원산이냐고 물었다.

— 이 사람은 고향이 서울이랍니다.

그러자 종업원이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신기하다는 듯이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 두 분은 참 다정해 보입니다.

이렇게 같이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별로 없다고, 우리더러 행복해 보인다면,

—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자주 오시라요.

라고 했다. 이렇게 살가운 인사를 받고나니 고향 방문길이 한결 정겹고 흐뭇했다.

— 말이라도 그리 해주니 고맙습니다. 자주 자유롭게 오가는 그런 날이 와야지요. 그런 날이 오기야 오겠지요? 허나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늙어 가고 있으니 언감생심이지요.

창 밖에서 자동차 수리가 다 끝났다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안 내원의 부축을 받으며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와 현관문을 나섰다. 후에 이곳을 다시 찾을 기회가 있어 자세히 보니 아름다운 풍경의 호수가 있어 한결 좋은 인상을 갖게 했다. 작은 금강산이라고 했다. 그렇게 불리울만 하구나 싶었다. 다시 출발해서 마식령 고개 길을 올라갔다. 날은 저물고 기온은 내려가고 도로는 얼음판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마식령의 구불구불한 길을 올라가는데 차 바퀴가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조금 올라가다가 바퀴가 얼음판에 미끄러져서 헛돌면 뒤로 후진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미끄러져 내려오면 또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몇 번을 되풀이 하다가 결국 포기해야만 했다.

한 많은 마식령 고갯길

운전기사는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준비가 부족했다. 그

유명한 마식령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체인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실망과 절망을 한 가슴에 끼안고 내려와야만 했다. 되돌아 내려오는데 도로에서 미끄러져 절벽의 나무 그루터기에 걸려 있는 다른 차를 보는 순간 이것이 고향 가는 길이 아니라 저승 가는 길이 되거나 않을까 싶어 순간 아찔했다. 결국 마식령 고개에서 원산 30km를 남겨두고 되돌아왔다. 평생을 두고 이루고 싶었던 소원이 이들의 마뜩잖은 행동으로 무산되고만 것이다. 박영철과 운전기사는 미안한 듯 얘기했다.

— 내년 꽃피고 따뜻할 때 또 오십시오.

이번 오는 것도 사빈고역 끝에 어렵게 왔건만, 말은 너무 쉽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아침 일찍 떠나지 않고 녹장을 부리다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고 소리쳐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을 애써 구겨 넣고 그의 말에 마른 침을 삼키며 답했다.

— 희망을 가져도 됩니까? 그렇다면 내년 따뜻한 계절에 꼭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썩기를 박았다. 하지만 채 가지지 않은 원망과 아쉬움에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나에게 마식령은 이런 가슴아픈 추억이 묻어나는 마음의 고향이다. 함경남도 덕원군 풍산면 마식령계곡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그곳 계곡에서 자란 나는 마식령의 추억은 마음의 친구 같은 존재로 떠오른다.

풍경 1

글/김영식

지나는
구름, 바람
소낙비 머금은 햇살
박물관수의 역사 한 줄기
어린 떠들이새의 울음마저
육백 년 느티나무 그늘 아래
모두 둘러 앉아 즐고 있는
한 여름 날의

빈 오후



※ 2020년 세종 국어문화원 사업 안내

- 국어 상담: 전화 02-735-0991, 누리집: www.barunmal.org
- 인터넷 상담 <http://www.korean.go.kr> (온라인가나다)
- 각종 공문서 및 사문서 문장 교열 상담
- 글쓰기 강좌: 매주 (수) 15:00~17:00
- 한글문화유적 탐방: 수시접수 15:00~17:00
- 언어 능력 향상 교육: 공무원의 공공언어 사용 능력 향상 교육
청소년 우리말 바르게 쓰기 교육
- 언어문화개선 운동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본부 안내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4, 313호
- 전화: 02-735-0991 전송: 02-738-9494
- 누리집: www.barunmal.com
- 후원 계좌: 국민 009901-04-042446
(예금주: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본부)